

‘찜통’ 방호복 입고 풀숲으로…벌집과 맞선 소방관들

남구 송하119안전센터 현장 출동 동행

“진월동 아파트 화단에 벌집 제거 신고 접수. 펌프차 1대, 생활안전 차량 1대 출동 바람.”

지난 4일 오후 1시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송하동 송하119안전센터. 이 곳에 이같은 방송이 울리자 소방대원 5명은 생활안전 차량에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한 뒤 현장으로 출동했다.

신고 접수 약 10분만에 현장으로 도착한 대원들은 신고자와 만나 벌에 쏘인 장소와 벌집의 위치를 파악했다. 당시 신고자는 오른쪽 전완부를 쏘였으나 알레르기 증상 등이 나타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

대략적인 위치가 파악되자 소방대원 중 2명은 머리부터 발목까지 감싸는 흰색 일체형 말벌 방호복으로 갈아입었다.

현장에 동행한 취재진도 같은 보호장구를 갖췄다. 고무장갑과 장화로 손발의 틈을 막고 안전 모 아래 투명 보호판과 촘촘한 안면망을 내려 살갗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몇 걸음 떼지 않았

한 곳 끝내자 또 신고 접수…출동 이어져

좁아진 시야로 나뭇가지 헤집으며 수색

작년 벌쏘임 환자 80%가량 7-9월 집중

“안전 최우선…작은 신고도 철저히 대응”

는데도 통풍이 되지 않는 방호복 안은 열기가 차올라 찜통을 방불케 했고, 보호판 너머로 보이는 시야도 좁아 풀숲과 나무 사이를 살피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10분가량의 수색 끝에 무성한 나뭇가지에 파묻힌 벌집이 모습을 드러냈다. 공격성이 강한 ‘등검은말벌’의 집이었다. 대원들은 말벌 퇴치 스프레이를 뿌린 뒤 직접 벌집을 떼 전용 비닐 팩에 넣고 테이프로 밀봉했다.

주변을 다시 살피던 중 ‘쌍살벌’의 집이 하나 더 발견돼 추가 제거 작업도 이뤄졌다. 이 사이 다른 대원들은 신고자의 건강 상태를 재차 확인했고, 추가 벌쏘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주민들에게 현장을 피해달라고 안내했다.



지난 4일 오후 1시10분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진월동 한 아파트에서 취재진과 소방대원들이 말벌 방호복을 입고 풀숲과 나무 사이를 뒤적이며 말벌집을 찾고 있다. /서형우 기자

제거 작업이 끝난 오후 1시40분께에는 주월동 한 아파트에서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됐다. 벌쏘임 피해는 없었으나 아파트 4층 높이에 등검은말벌집이 자리 잡고 있었고, 대원들은 살수기를 활용해 벌

집을 떨어뜨린 뒤 스프레이를 뿌려 제거했다.

송하119안전센터에는 이날 오후 5시까지 총 3건의 벌집 제거 신고가 접수됐다. 벌집이 주로 성장하는 7-9월에는 벌집 제거와 벌쏘임 신고가

집중되며, 많은 날에는 출동 건수가 10건을 넘기도 한다는 것이 대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남광주 5개 자치구에서 접수된 벌집 제거 신고 3천605건 가운데 2천667건이 7-9월에 집중됐다. 동기간 내 벌쏘임 환자 역시 78건으로, 전체 97건 중 80.4%에 달했다.

올해 역시 지난 7-8월 벌집 제거 신고는 1천362·1천421건 접수됐으며 벌쏘임 환자도 29·27명 발생했다.

이날 벌집 제거 작업에 참여한 김기수(30) 소방사는 “7-9월은 벌쏘임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니 야외활동이나 추석 성묘 때는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의 긴소매 옷과 긴바지를 입고 과일 향이 강한 향수는 피해야 한다”며 “벌집을 발견한다면 직접 제거하지 말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뒤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연이은 출동에 힘들 때도 있지만 현장 활동을 마친 뒤 시민들의 감사 인사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소방대원들은 언제나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만큼 작은 신고라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형우 기자



민중노총 광주본부는 지난 5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노동자 2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 4일 7시간, 청년 U-턴 호남으로! 좋은 일자리 메가특구 노동자·시민대회’를 개최했다. <민중노총 광주본부 제공>

“청년 돌아오는 호남 만들자”…좋은 일자리 촉구

민중노총 광주본부, 노동자·시민대회 개최

노동시간단축·적정임금·지역민 고용 요구

전남광주지역 노동계가 청년들이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촉구했다.

6일 민중노총 광주본부에 따르면 전남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주 4일 7시간, 청년 U-턴 호남으로! 좋은 일자리 메가특구 노동자·시민대회’를 개최했다.

주최측 추산 시민·노동자 2천여명이 참여한 이날 대회에는 건설·반도체 노동자와 청년 등이 참석해 호남의 산업 전환이 노동자와 지역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반도체와 AI, 미래차, 에너지 등 대규모 산업이 지역에 들어서는 만큼 기업 지원과 산업 규모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 4일 7시간 노동을 비롯한 노동시간 단축과 적정임금, 안전한 일자리, 지역민 우선 고용 등을 요구했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도 제안했다. 특히 건설노동자들은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지역 노동자의 참여와 적정임금·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도체 노동자들도 노동환경과 고용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이사제 등 노동자 참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청년이 돌아오는 호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의 숫자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바꿔야 한다”며 “산업 전환이 기업만을 위한 성장이나 노동자와 시민, 청년이 함께 누리는 지역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찬용 기자

무안 대발 화재 야산 번져…2시간여 만에 완진

헬기 등 장비 17대·인력 44명 투입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무안군의 한 대나무 밭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졌으나 1시간48분 만에 완진됐다.

전남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 9분께 무안군 해제면의 한 마을회관 근처에 위치한 한 대나무밭에서 난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졌다.

이에 소방당국은 산림청 소속 헬기 1대를 포함한 장비 17대와 소방·경찰·산불진화대 등 44명을 투입해 불을 껐다.

불은 오후 12시57분께 초진됐으며 오후 1시11분께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발과 인근 임야 일부가 타거나 그을렸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오지현 기자

신호 대기 차량 ‘꽁’…음주운전 40대 입건

3대 연쇄 추돌…3명 경상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15분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동 농성교차로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몰다 신호 대기 중이

던 B(20대)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충격으로 B씨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해 있던 C(30대·여)씨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C씨 등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연상 기자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